

2010년 4월 8일 (목) 계시 <생각실상 세계에 대해(100219)> 이수정

할렐루야. 부산 주 믿음 교회 캠퍼스 이수정입니다.

2010년 2월 19일 새벽 자꾸만 변질되는 제 사랑이 느껴져서 사랑의 회개기도를 드릴 때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 말씀>

생각 실상의 세계이다.

사랑에 깨어나라. 잠든 너희, 사랑의 마음이 깨어나라.

24시간 사랑하고 나를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사랑하면 모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려고 몸부림쳐서는 100% 가 되지 않는다. 사랑을 하면 당연한 듯 되어지는 것이다.

생각 실상의 세계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쉬지 않고 나만 생각할 때 너희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도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지.

너희가 쉬지 않고 나를 생각하려면 사랑의 눈을 떠야 한다. 사랑하기에 나만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다.

사랑의 눈을 떠라. 너희가 사랑으로 나를 떠 올릴 때 너희가 나에게 오는 것이다. 내가 너와 24시간 항상 함께 함도 이것이다.

나 예수 하나의 몸이지만 너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한 몸의 나 예수이지만 모두에게 역사 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사랑은 100% 밖에 되지 않는다.

100% 가 아닌 사랑은 사랑이라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내 목숨 줄 만큼, 날마다 이제껏 기다려 줄만큼 사랑하지.

그러니 나의 마음에는 너희가 가득 차있고, 그러니 내 영이 너희 모두와 함께 하는 것이다. 너희 모두 사랑하니 내 파장이 쉬지 않고 너희에게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 영이 24시간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나는 사랑으로 함께 하지만 너희가 사랑에 눈뜨지 못하면 내 파장을 느낄 수 없다. 너희 또한 나를 사랑하여 너희 파장이 나에게 닿고 너희 영이 나와 함께일 때 통하는 것이다.

사랑이 통하는 것이 나와 통하는 것이다.

100%의 사랑이 통하는 자가 나와 통하는 자이다.

사랑은 100% 다. 온전치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요, 그저 한순간 마음이 뜨거운 것뿐이다. 이것은 변하고 변질된다. 금새 잊어버리게 된다.

100%의 사랑, 사랑은 100% 다.

너희 선생 같은 사랑, 선생의 마음이 사랑이다.

어떤 자의 사랑은 변한다. 하루에도 사랑했다 안했다 변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니라. 너희 선생의 마음이 사랑이다. 그러니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영계를 보는 자들 통해 들어보았느냐. 나와 더 가까운 자가 있고, 나와 멀리 있는 자가 있다. 나는 모두를 사랑하는데 왜 이러하겠느냐.

너희의 마음이다. 나를 사랑하고 마음이 온통 나에게 쏠리는 자의 영은 항상 나와 가깝다.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산다.

나와 함께 살자고 내가 말하였던 것도 이것이다. 사랑으로 마음이 통하는 것,

너희 마음에 다른 마음 틈탈 때 마다 나와 멀어지는 것이다.

겨우 나와 가까워졌는데 멀어지지 말자.

비밀 한 가지를 말하였다. 궁금했지. 한 몸의 예수가 어떻게 모두에게 역사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생각 실상의 세계이다. 사랑하므로 내 이름 불러보아라. 너희 생활 속에 가깝게 불러.

생각 실상의 세계이니 사랑하면 같이 살고, 사랑하면 같이 생활하는 것이다.

사랑한다. 사랑하기에 오늘도 너희 모두와 함께 하는 나 예수가.